3/3/19

설교 제목: 유다 민족이 대적들을 진멸하다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에스더 9 장 1-16 절

(에 9:1) 아달월 곧 열두째 달 십삼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에 9:2)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절관주] 시 71:13, 에 8:17

(에 9:3)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절관주] 잠 16:7

(에 9:4)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절관주] 삼하 3:1, 대상 11:9

(에 9:5)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에 9:6)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에 9:7)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에 9:8) 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리다다와

(에 9:9)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

(에 9:10)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절관주] 창 14:23

(에 9:11)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에 9:12)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절관주] 에 7:2

(에 9:13)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에 9:14)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에 9:15) 아달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삼백 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절관주 에 9:10

(에 9:16)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9 장에서 에스더서는 절정을 이룹니다.
유다 민족은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급반전하여 구원을 얻고 큰 승리를 거둡니다.
저자는 민족의 멸망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로부터 구원된 유다인들의 감격과 기쁨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본문은 하만이 유다인을 멸절시키기 위해 제비를 뽑아 정한 아달월 십 삼일에 도리어 유다인들이 그 대적들을 진멸하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아달월 십 삼일이 유다인의 멸망(Destruction)의 날에서 구원(Deliverance)의 날이 된 것입니다.

(에 9:1) 아달월 곧 열두째 달 십삼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 날에

아달월 곧 십 이월 십삼일은 하만이 유다 민족의 대적들을 동원하여 유다인을 멸절시키려고 작정을 하고 니산월인 정월에 브르 곧 제비를 뽑아 정해 놓은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11 개월 동안 세상은 천지개벽을 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되어 아달월 십삼일이 도리어 유다인들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날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역전을 허락 하십니다.
대적을 이기게 하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에 9:2)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에 9:3)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개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에 9:4) 모르드개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개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아달월 십 삼일에 유다인들은 각 도와 읍에 모였습니다.

그날은 하만이 왕의 이름으로 반포한 첫 번째 조서로 인해 누구나가 합법적으로 유다인을 공격하고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허용된 날입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드개가 쓴 새로운 조서를 반포함으로써 유다인들은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자들을 방어하고 나아가 공격까지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얻은 권리를 힘을 합쳐 행사하고자 각 도와 읍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 조서를 꾸몄던 하만은 처형되었고 두 번째 조서를 쓴 모르드개가 하만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모르드개에 의해서 씌여진 왕의 두 번째 조서로 인해 사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반면에 유다의 대적들은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당연히 모든 민족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고 그들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도 모든 관원과 대신과 방백과 왕의 사무를 보는 자들도 왕궁에서 세력을 잡고 있는 모르드개를 두려워하여 유다를 도왔습니다.

드디어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이 전국에서 전개됩니다.

(에 9:5)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에 9:6)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오백 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에 9:7)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에 9:8) 보라다와 아달리야와 아리다다와

(에 9:9) 바마스다와 아리새와 아리대와 왜사다

(에 9:10) 곧 함므다다의 손자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유다인들은 대적들을 도륙하고 진멸하였는데 수산 성에서만 오백 명을 죽이고 하만의 열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일절 손대지 않았습니다.

사실 왕의 조서에는 그들의 재산도 마음대로 탈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자신들이 대적들을 진멸하는 것이 정당 방위이지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소인배적인 행위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고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이 있으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전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에 대해 하신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출 17: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출 17: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출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출 17: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출 17: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 하게 하리라

(출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출 17: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신 25:17)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신 25:18)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 25:19)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네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삼상 15:2)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삼상 15: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멜렉은 이삭의 큰 아들인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형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430 년간 종살이 하다 겨우 출애굽한 연약한 이스라엘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해서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몹씨 괴씸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다 진멸해버리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멜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와가 아멜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너는 천하에서 아멜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멜렉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만은 아멜렉 족속입니다.

(에 3:1)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각은 아멜렉 왕이였으므로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은 아멜렉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대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만과 그의 열 아들과 유다인을 대적했던 자들의 멸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단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예시이며 예고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그날 살육의 진상을 보고 받고 에스더에게 이것으로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면서 더 요구할 것이 있으면 들어 줄테니 말하라고 종용합니다.

(에 9:11) 그 날에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에 9:12)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오백 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왕은 이정도면 에스더가 충분히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추가적인 요구를 합니다.

(에 9:13)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에스더는 대적들을 진멸하는 것을 수산 성에서만 하루 더 연장해 줄 것과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만이 처형당하기 직전까지 총리 대신 자리에 있으면서 수산 성을 주름잡고 있었던 연유로 수산 성에는 아직도 하만을 지지하고 유다인들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을 남겨 놓으면 그들이 언제라도 다시 세력을 규합해서 유다인을 공격할 것입니다.
에스더는 대적들을 완전히 뿌리 뽑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유다인을 건드리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경고하려 한 것입니다.

에스더의 추가적인 요구를 왕이 허락합니다.

(에 9:14)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에 9:15) 아달월 십사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삼백 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에 9:16)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칠만 오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에스더의 요구대로 다음 날인 아달월 십 사일 하만의 열 아들 시체가 나무에 달리고 수산성에서는 유다인을 대적한 자들 삼백 명이 추가적으로 멸절을 당합니다.
전날 각 도에서 칠만 오천 명이 도륙된 것까지 합하면 유다인의 대적들 칠만 오천 팔백명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의 말로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은 당신의 섭리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당신의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이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에게 소홀히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치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남은 구속사을 집행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종국에 반드시 구원받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만사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좇아서 섭리적 도구로 선용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취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당신의 계획을 당신의 때에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붙들려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진리를 생명으로 지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종국에 믿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요삼 1: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진리 안에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